

“귀양살이 설움을 실학으로 꽃피우다”

책의 해 조직위 주최 ‘책의 역사를 찾아’... 전남 강진의 茶山草堂

박전걸

대한출판문화협회 총무부

2월27일은 30여년 만에 닳을 올린 문민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린 날. 이 날, 책의해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93책의 해 사업인 '책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을 처음으로 떠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필연으로까지 비추인다. 또한 각 신문·방송사마다 새 정부의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물이야기가 연일 무성한 때 공직자들이 해야 할 바와 안해야 될 것을 소상히 밝힌 「목민심서」의 저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숨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다산초당'을 찾아가는 여행은 많은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유배를 떠날때, 다산이, 총애해주던 정조 임금에게 읍하고 떠났음직한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그곳에서 간단하나마 뜻깊은 발대식을 갖고, 문화방송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으로 보이는 노년층과 엄마를 따라온 4살짜리 꼬마, 언론사기자, 출판대학생, 출판인 등 다양하게 구성된 90여명의 독자들은 선인의 발자취와 숨결을 따라가는 1박 2일의 여정을 시작했다.

5백여 저술 낳은 다산학 총본산

연휴의 첫날이라 그런지 도로는 나들이가는 차량들로 미어진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한결 밝은 색상과 가벼운 옷차림이 대부분. 주말 오후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 퇴근길의 직장인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길을 보내온다. 고속도로로 들어서서 곳은 더욱 붐빈다. 다산이 통한의 아픔을 간직하면서 눈물을 뿌리며 지나갔을 강진으로 향하는 길은 수레를 몰던 때와 같이 느릿느릿 움직인다.

일행들의 바쁜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는 차량들로 마냥 미어지다 사방이 어둑해졌을 때가 되어서야 제대로 달리기 시작한다. 저녁 한끼를 해결키 위해 들른 휴게소는 어느 분의 말씀대로 가히 이수라장이었다. 보리밥에 된장 찍어먹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형 정약전과 함께 유배를 떠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형을 흑산도로 떠나보낸 나주 울정점을 지나, 전남 강진에 도착한 것은 자정을 넘긴 12시 30분경.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와서 4년동안 지냈던 동문 밖 주막 골방을 '마땅히 네가지를 행해야 할 방'이란 뜻으로 四宜齋라 이름짓고 머물렀던 때와 달리, 강진읍에서도 꽤 큰 축에 들어갈, 남도장에 짐을 풀었다. 스산한 초겨울(11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었을 강진 유배지에서의 첫밤을, 우리 일행은 절절 끓는 온돌방에서 새벽녘까지 회포를 풀다 곤한 잠을 청하였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다산초당으로 떠나기 전에 강진읍의 공보계장이 인사차 나춘호(예림당 대표) 단장을 방문하였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출발한 때는 8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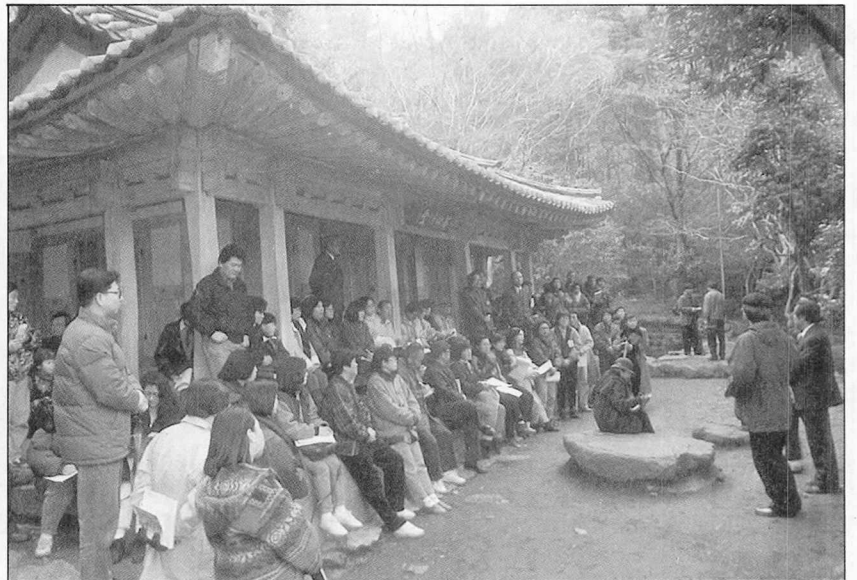
바닷가의 짝짝한 내음과 바람이 차창을 때리며 와닿는 강진읍은 야트막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였고 끝없는 개펄이 시골처녀의 앞치마같이 퍼져있는, 고요와 평화가 깃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창때는 고기잡이 배들로 꽤 요란하였을 구강포는 고즈넉이 숨죽이고 있고, 무성한 갈대는 옛날의 포구라는 것을 잊은 지 오래였다. 넓은 개펄의 한쪽에는 이곳이 간척지로 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다.

동문 밖 주막에서 4년 여를 보내고 혜장 선사의 주선으로 고성사의 보은산방으로 옮긴 때는 1805년 겨울. 여기서 다시 1년을 지낸 후 이학래家を 거쳐 현재의 초당이 있는 곳으로 온 때는 유배생활 8년째 되는 무진년 봄이었다.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은 다산은 이곳에서 많은 책을 읽고 쓰는 생활을 하게 된다.

물론 주막 골방에서도 예기를 연구한 「단궁잡음」를 비롯하여 「조준고」 「예전상의관」 등의 글과 「탐진어가」 같은 유명한 시가 이때 씌어졌으며, 삼정의 문란을 통탄한 「애절양」도 이때 나왔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날 다산학이라 일컫는 선생의 저서 500여권 중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480여권이 이곳 초당에서 씌어졌음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유배에서의 참혹한 생활을 저술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당으로 오르는 가파른 길을 10여분 올라가자 '다산초당'이란 안내판이 마치 선생의 유배생활을 회고해주듯 땅에서 뿔뿔히 길바닥에 팽개쳐져 있다. 초당 지붕은 새것이로되 마룻장은 옛날 그대로인 것 같다. 세월의 더께가 덕덕덕지 묻어 있는 기둥과 추사 김정희 선생이 현액했다는 '다산초당' 현판이 찾아온 우리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다. 일행은 선생의 체취를 맡으려는 몸짓인양 부지런히 여기저기를 돌아본다. 만덕산의 남녘을 깎아 만든 초당은 이제 '와당'으로 변해 있기는 하지만, 187년이 지난 오늘에도 선생의 혼은 살아, 이 시대 목민관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준엄



위) 「강진신문」 발행인 운동환씨의 다산초당에 대한 설명회.
아래) 「목민심서」 초고를 완성한 다산의 서재 '다산동암'.

하게 지켜 보고 있는 것만 같다.

그래서 그런지 세찬 바람이 초당을 휩쓸고 다니는, 좁은 이른 아침에, 현지에서 합류한 운동환(강진신문 발행인) 선생과 같이 떠난 김상홍(단국대 한문교육과) 교수의 강의에 많은 사람들이 꼼짝도 않고 열심히 듣고 있다.

동백나무 울창한 백련사도 인근에

스스로 다산사경이라고 이름짓고 기꺼워 했다는 다조, 약천, 정석, 연지의 석가산은 강의 의를 듣고 있는 우리 일행 주위에 널려 있었다. 그저 흔하디 흔한 바위, 으레 그렇듯이, 산정에 가면 있는 샘물, 우리나라 어느 산에서든 흐르는 작은 계곡물 등 어느 것 하나 새삼스러울 것이 없겠으나 선생은 이를 자연의

축소경으로 보며 세상을 초당안에서 축소시켜 보았나 보다.

일행인 한 할머니가 앉아 설명을 듣고 있는, 마당 앞쪽 후박나무 그늘 밑에 자리잡아 있는, 그저 평범한, 편편한 바위를 '다조'라 이름지어 부르며 제자들과 함께 손수 밭을 일궈 가꾼 죽로차, 작설차 등을 달여 마시며 학문을 논하고 담소를 나누었던 곳이라 생각하니, 예사롭지만 않은, 세월의 무상함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바위로 보인다. 우리들이 줄을 지어 마시던 초당 왼쪽 한귀통이에 자리잡아 있는 샘이 '약천'이다. 선생은 이 물을 떠다가 차를 달여 마셨다 하며, 그 뒷쪽에 이곳에 머물던 흔적을 남기고 역사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 친필로 쓴 '정석'이란 바위가 구강만을 내려다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야망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이팅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교열·교정용 레이저 프린터 2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보고 서 있다. 초당 오른쪽 땅을 파서 만든 인공연못인 '연지'에는 겨우내 몸을 움추리고 지냈던 잉어 두어 마리가 일행을 쳐다보며 놀고 있다. 선생이 길렀던 잉어는 아니겠지만, 유유자적하고 품새가 범상(?)치 않아 보이기까지 하다. 그 연못 중앙에 산에서 주워 온 괴석들을 쌓아 놓은 것이 석가산이다. 물론 지금은 괴석은 커녕 꿩잡아 보이는 돌맹이도 없다. 윤동환 선생에 의하면 관광객들이 모두 주워갔다 한다. 기념품으로.

선생은 학문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몸소 이를 증명해 보이려 애쓰신 것 같다. 우리 일행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곳이 바로 선생이 품소가꾸신 계단식 밭. 여기서 차와 일용할 푸성귀를 수확하시며 백성들의 노고를 스스로 느끼고 이를 저술활동에 보태신 것 같아, 앉아 있는 자리가 영 편치를 앓다.

초당에서 오른쪽 숲길로 조금만 가니 '천일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산등성이에 세운 정자로 이곳에서는 구강만이 한 눈에 들어온다. 멀리 고기잡이를 나가고 들어오는 배들이 평화롭게 보이기만 한다. 이곳에서 선생은 글을 쓰시는 틈틈이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멀리 흑산도에 유배가 있는 형을 그리워 하기도 하였다. 천일각 주위는 봄이 먼저 왔는지 아주 따뜻하다. 거센 바닷바람에 언 몸을 일행은 이곳에 모여 녹이며 간절한 육친의 정을 달랬던 선생의 심경을 돌아보며 담배 한대를 피워뚫다.

유배생활은 외로움과 절망감의 연속이었으리라, 중앙무대에서 밀려났다는 패배감과 이때까지 쌓아온 학문을 펼칠 기회를 잃었다는 비애에 휩싸여서. 그러나 선생은 이를 창조적인 활동으로 슬기롭게 이겨냄으로써 제2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 씌어졌던 선생의 저서에는 저술활동을 도와준 제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에 남기셨다 한다.

만덕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조금만 비켜서면 등성이를 넘어가는 길이 나 있다. 울창한 숲과 이름없는 풀꽃과 낙엽이 깔려 있는 낭만적인 산길을 30여분 올라가자 한창 단장에 여념이 없는 산사가 나타난다. 이름하여 백련사. 주위는 온통 동백나무들로 뒤덮여 있고 적막하기조차 한 곳이다. 이곳에서 선생은 해장 선사와 차를 나누며 주역을 논하기도 하시면서 유배생활의 유유자적을 즐기셨던 모양이

다. 백련사에서 일행은 김현준(우리문화연구원 원장) 선생의 해박하고 여유있는 설명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다.

다향 그윽한 실학의 산실을 떠나며

운치있는 산사를 내려와 일행은 강진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를 찾았다. 20여분 걸어 올라간 선생의 생가는 마치 모란이 필 때를 기다리는듯 봄단장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강진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국립공원 월출산 동남쪽 기슭에 있는 극락전(국보 제3호)으로 유명한, 무위사를 들렀다. 역시 김현준 선생의 흥미있는 설명을 듣고 귀경시간에 쫓겨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한 '책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은 '93 책의 해를 더욱 뜻깊게 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쌀쌀한 날씨에도 진지하게 강의 요지를 적고, 무엇 한가지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돌아보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돌아오는 차속에서 벌어진 다산 선생의 일화를 주제로 한 경품행사(금성출판사, 범우사, 동아출판사, 창작과비평사, 삼진기획 제공)도 재미있었고, 김학영(서예가, 전각가) 선생의 전각 수집품 비디오 테이프를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금상첨화였다.

또한 다양하게 구성된 일행을 끝까지 잘 이끌었던 김현준 원장의 우리문화연구원 직원들의 성실감이 돋보였고, 나춘호 단장을 비롯한 조직위 임흥조 사무총장, 윤청광 기획간사 위원, 언론사 기자 등 제세들이 일반 독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정에 협조하는 모습이 좋았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귀경시간에 쫓겨서이지만, 인근에 있는 고산 선생의 유적지인 '녹우단'을 방문하지 못한 점이다. 하지만 그 짧은 일정에, 더구나 남단 끝 무렵에 있는, 다향 그윽한 실학의 산실을 직접 돌아본 것만으로도, 책의 해에, 문민정부의 새 목민관들이 들어선 때에, 이번 여행의 의미를 다한 것 이리라.